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 | () | (오 거룩한 생명의 샘) | () |

제 1독서 | 예제키엘 2,2-5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화답송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좌)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우)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 2독서 | 코린토 2서 12,7-10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 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6,1-6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쁘게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대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Today's Gospel, <Mark 6:1-6>

Jesus went to his home town and his disciples accompanied him. With the coming of the sabbath he began teaching in the synagogue and most of them were astonished when they heard him. They said, 'Where did the man get all this? What is this wisdom that has been granted him, and these miracles that are worked through him? This is the carpenter, surely, the son of Mary, the brother of James and

Joset and Jude and Simon? His sisters, too, are they not here with us?' And they would not accept him. And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only despised in his own country, among his own relations and in his own house'; and he could work no miracle there, though he cured a few sick people by laying his hands on them.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탈출기를 읽으면 주님이 보인다> - 안소근 수녀님

“탈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보면서 마음 안에 간절한 염원을 느낄까요? 탈출기라는 책은 그 염원에 응답합니다.

탈출기는 출애굽기라고 하다가 성경 번역을 새로 하면서 제목도 다시 붙게 된 책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짧게 설명하면, ‘출애굽’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탈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아마도 기원전 13세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탈출은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왔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탈출기에 기록된 이 과거의 사건은 그러한 탈출들의 원형이 됩니다.

이집트 탈출이 과연 얼마나 규모가 큰 사건이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6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특정 집단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얼굴을 보여 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공유하게 되었기에 60만이, 우리 모두가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말하게 됩니다.

탈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18장은 이집트 탈출에 관한 설화를 들려주고, 19—40장은 주로 법을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은 열 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 14—15장에서 갈대 바다를 건너고 16—18장에서 광야를 지나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19—40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이 시나이 산에 머뭙니다. 레위기 전부와 민수기 10장까지도 시나이 산을 배경으로 할 것입니다.

탈출기의 전반부, 1—18장에 기록된 이집트 탈출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이스라엘도, 파라오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하느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탈출 3,13 참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을 때 파라오는 주님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탈출 5,2 참조). 아직 아무도 그분을 모릅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라고 대답하십니다. 뜻을 알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대략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나는 그냥 나이지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 신들 중의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안에 하느님이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있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을 거치면서 그러한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철학의 하느님 이해와도 깊이 연관되었습니다.

셋째는, 내가 누구인지는 이제부터 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나, 그것이 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탈출 3,12).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탈출 7,5).

세 번째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탈출 3장에서 아직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겪지 않았습시다. 그러니 천 마디 말로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알 수 없습시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열 가지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는 아홉 가지 재앙을 거치고도 하느님을 알지 못했으니 그가 하느님을 알게 한 것은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가 죽었던 열 번째 재앙에서였습니다(탈출 11장).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갈대바다를 건널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탈출 14,13).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표지가 15장에 나오는 바다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탈출 15,2).

여기에 이르면 파라오도 하느님을 알고 이스라엘도 하느님을 압니다. 더 이상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분으로 일컬어지실 것입니다. 탈출은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억압과 불의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해방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아닐 때,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양이 억눌려 일그러져 있을 때 하느님은 다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해 주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편 136,24).

공지 사항

1. 첫영성체 교리반 시작

다음주 주일부터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합니다.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구진표, 구규린, 박유비, 박태오, 박리암, 정유라, 김제인, 김다니엘”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청하며,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첫영성체 일시: 8월 4일(주일), 주일미사 중

2.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캠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양업 전산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적의 전산 등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구 테이블 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동의서는 스캔한 후 양업 시스템에 업로드 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성당에 교적이 있거나 타 한인성당에 교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원래 교적이 있던 성당 사무실에 '교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캠버라 한인성당 이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혹은 인쇄된 증명서 주임신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캠버라 한인성당에서는 해당 신자분의 교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 | | |
|--------|-------------|---------|
| 6월 23일 | 유아·청소년: 18명 | 성인: 39명 |
| 6월 30일 | 유아·청소년: 명 | 성인: 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 |
| P/W: 69g58g | |

| 전례 독서 봉사자 |

| | |
|-----------------|------------------|
| 이번주 (7월 7일) |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
| 다음주 (7월 14일)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 | |
|-----------------|------|
| 이번주 (7월 7일) | 루카반 |
| 다음주 (7월 14일) |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6월 29일 ~ 7월 5일)

| | | |
|-------|----|--|
| 봉 헌 금 | \$ | |
| 교 무 금 | \$ | |
| | | |
| | | |
| | | |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